

청소년 비행 원인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 청소년패널 두 연령집단에서의 검증*

이 성 식*

국문요약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기존의 주요 이론 사회통제이론, 차별접촉/사회화습이론, 긴장이론, 일반이론의 주요 요인들을 적용하여 청소년패널 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가정요인들은 남녀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초등학교 저연령에서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그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요인은 사회유대요인인 학교공부관여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구요인으로 긴장이론에서의 친구관계긴장은 여자의 경우보다는 남자의 경우에서 유의미하였고 초등학교보다는 중학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초등학교와 중학생 모두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성향인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본 연구의 예측대로 남녀모두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볼 때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성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었고, 연령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의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별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이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사회학박사

I. 서론

청소년비행의 성차이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관심을 끄는 주요 연구주제의 하나이다. 성차이라 할 때 그것은 과연 남성이 어떤 이유로 여성보다 비행을 많이 하는가에 관한 것 이외에(Jensen and Eve, 1976; Hagan et al., 1987; Steffensmeier and Allan, 1996),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에 관심을 갖는다. 기존의 주요 청소년비행이론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남녀에 구분없이 모두에 적용될 것이라 보고 있지만 이후 연구들은 성별로 비행의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비행대책에 있어서도 일반적 전략보다는 성별로 차등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주요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사회통제이론,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긴장이론, 일반이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의 주요 원인들이 남녀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이 연구는 특별히 다음의 점에 유념한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여러 이론의 원인 및 가정, 학교, 친구관련변인 등 주요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정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있어서 비행친구변인을 함께 고려하면 그 영향력이 대체로 매개되며, 그 직접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도, 비행친구영향을 통제하지 않고 가정변인들만을 고려하게 된다면 그 영향력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 이론들의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상태에서 남녀간에 주요 원인 및 그 영향력의 차이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연구자료가 횡단적 자료인지 아니면 종단적 패널자료인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를 수 있다. 비행과 그 원인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

기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통한 분석결과가 더욱 요구된다. 하지만 그동안의 국내 대부분의 연구는 한 시점의 횡단적 연구였다는 점에서 그동안에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 간주되었던 요인들이 진정한 원인인가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들에서 일관된 연구가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달랐다는 점에도 그 이유가 있다. 어떤 연구는 아동이나 중학생 연령을 조사대상으로 했고, 어떤 연구의 경우는 고등학생의 청소년 후기 연령을 조사대상으로 한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연령 구분없이 청소년 전체연령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도 있다. 만약 최근의 발전이론이나 생애과정이론의 주장에서처럼 연령에 따라 비행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면 연령집단에 따른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주요 청소년비행이론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성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해보고, 국내 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하며, 아울러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각각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그 원인이 두 연령집단별로 과연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II. 이론적 논의: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있어서 성별차이의 기존 연구들

청소년비행의 주요 이론들을 남녀에 각각 적용해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는가? 청소년비행에 있어 여러 요인들을 고려

한 기존의 대표적인 남녀비교연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Smith, 1979; Rowe et al., 1995). 예컨대 Smith(1979)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남녀에 차이없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내면화된 규범의식이 주요 요인임을 밝혔으며, Rowe와 동료들 연구(1995)에서는 남녀모두 부모의 애정, 학업활동, 비행친구와의 접촉, 그리고 충동성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했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존 청소년비행의 원인요소들은 남녀별로 다르다는 주장과 연구결과가 있다.

기존 연구들을 이론별로 살펴보면, 먼저 사회통제이론의 설명요인들은 대체로 남자청소년의 경우보다는 여자청소년의 경우에서 더 설명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Rosenbaum, 1987).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은 주위 사람과의 유대 여하에 의해 비행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성들은 남성보다 사회에 순응하고 동조하기를 더 요구받기 때문에 주위 사람과의 관계나 다른 유대요소가 여자청소년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사회유대요소들이 여자청소년비행에 더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고 주장된다. 실제로 가정유대요인은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이 제시되어 왔다(Cernkovich and Giordano, 1987). 하지만 가정요인이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anter, 1982).

그렇지만 가정유대요인을 부모의 감독과 부모에 대한 애착으로 구분할 때 다소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국내의 김준호와 김은경(1995)의 연구를 보면 부모의 감독의 영향은 남자청소년의 경우보다 여자청소년의 경우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을 통제해도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의 경우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서 더 중요한 요

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애착은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에게 있어 보다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Anderson et al., 1999),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전영실(2003)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족유대변인이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고 여자청소년의 비행에서 다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지만, 특별히 부모의 감독은 여자청소년에게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남자청소년에게서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사회통제이론의 요인은 아니지만 또 다른 가정요인으로 특별히 가정에서의 부모의 강압적 양육이나 학대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김준호와 김순형(1995)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학대가 남녀 중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임을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남자청소년의 경우보다는 여자청소년의 경우에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Widom과 Kuhns(1996)의 여자청소년 매매춘에 관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대는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고, Chesney-Lind(1997)와 국내에서 이성식과 전신현(2001)의 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비행으로 특히 가부장가정에서 부모의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가출하게 되어 비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보다 최근에 김성경(2003)의 연구에서는 개인성향 및 가정, 친구, 학교관련요인 중에서도 특히 가정에서의 학대가 여자청소년비행의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가정요인과는 달리 학업성취도나 학업에 대한 관여 등의 학교유대요인은 여자청소년의 경우보다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서 보다 중요한 요인임이 제시된다(김준호, 김은경, 1995). 전통적 성역할에 따르면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여성과 달리 남성은 성취지향적이고 독립적이며, 따라

서 학업요소들은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주요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업관련요인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고(Smith and Paternoster, 1987), 학교유대요인은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통제하는 데에 보다 중요한 연구결과도 있다(Rankin, 1980; Rosenbaum and Lasley, 1990). 하지만 학교유대요인중에서 학교공부에의 관여는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중요한 요인이지만 학교나 교사에 대한 애착은 여자청소년의 비행과 더 연관된다는 주장도 있다(Krohn and Massey, 1980).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비행친구의 비행에 대한 영향은 다소 불명확하지만 남자청소년에게서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Johnson, 1979; Smith and Paternoster, 1987). Funk(1999)의 연구에서도 여자청소년의 비행은 가정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는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것이 비행에 있어 더 큰 위험요소가 된다고 하여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에 많은 연구들은 가정이나 학교관련 요인은 비행친구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할 때 미약하며 결국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하는데, 사실 남녀 모두에게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결과가 많다. Bjerregaard와 Smith(1993)의 연구에서는 비행친구를 고려했을 때 부모의 감독이나 부모에 대한 애착 변인은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남녀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녀에 큰 차이가 없음을 제시했고, 국내연구로 김준호와 김은경(1995)의 연구에서도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남녀 청소년 모두에 있어서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긴장이론에서의 일상긴장의 영향력은 어떤가? Agnew(1992)의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가정, 학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긴장이 비행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일상긴장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offman and Su, 1997). 그러나 긴장은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의 경우에서 더욱 강하게 작용하며, 특별히 여러 다른 비행보다도 남자청소년들의 긴장은 폭력비행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연구가 많다. 부모나 어른과의 관계에서의 긴장이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의 비행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Mazerolle, 1998), 최근에 Hay의 연구(2003)에서도 가정에서 부모와의 갈등과 같은 긴장요소는 남자청소년의 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Agnew와 Brezina(1997)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의 긴장이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비행을 더 잘 설명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들 학자들에 따르면 그 이유는 일상긴장으로 남녀간에 부정적 감정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인데, 즉 여성의 경우는 긴장의 반응을 내면화하고 우울해 하거나 자책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성은 화와 같은 공격적 반응을 보이고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외부에 표출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Gottfredson과 Hirschi(1990)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일반이론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은 남녀에게 공히 중요하고 유일한 비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p.148).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는 주로 남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연구결과를 밝혀왔지만, Rowe와 동료들의 연구(1995)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 혹은 충동성이 남녀 모두에게서 주요 원인임을 밝혔고, 또한 국내연구에서 민수홍의 연구(2002)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여자청소년의 지위비행 뿐만 아니라 재산, 폭력비행 등을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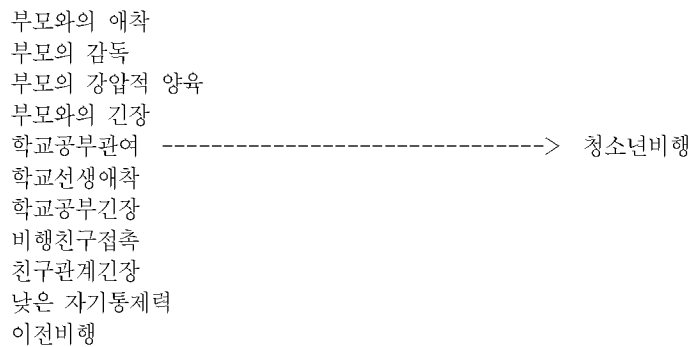
Ⅲ. 연구가설과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를 검증함에 있어 청소년개발원의 패널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아래의 모델에서처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사용하기로 한다. 우선 가정요인으로는 가정유대요인으로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의 감독을 사용하기로 하며, 또 한편으로는 부모의 강압적 양육의 영향을, 그밖에 긴장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긴장을 사용하기로 한다. 학교요인으로는 학교유대요인으로 학교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의 학교공부 관여와 학교선생에 대한 애착을, 그리고 긴장이론에서의 학교공부에서의 긴장을, 친구요인으로는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그리고 긴장이론에 근거하여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을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개인성향 요인으로 일반이론에서의 낮은 자기통제력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아울러 여기서는 각각의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서 기존의 비행의 경험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전비행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요인들의 순수한 영향력을 정확히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비행을 통제할 경우 그 영향력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것은 비행친구와의 접촉한 아이들이 이전에 비행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앞의 논의에 근거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는데, 남자청소년의 비행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학교공부에의 관여, 그리고 긴장요인들이, 여자청소년의 비행의 경우는 부모의 감독과 부모의 강압적 양육,

학교선생에의 애착이 더욱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며,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남녀 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림 1> 청소년비행에 대한 연구모델

한편 여기서는 위의 모델의 검증을 남녀에 각기 적용하는 것 이외에 상이한 두 연령집단에 적용해 보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개발원에서 수집한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대상의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기존의 논의에 근거해 볼 때 주요 이론들에서의 요인들은 두 연령집단에 다르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Thornberry(1987)는 가정, 학교, 친구관련 요인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주장을 하였다. 즉 청소년기를 초기(11-13세), 중기(15-16세), 후기(18-20세)로 나눌 수 있다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유대와 같은 가정요인이 중요하지만 중기를 거쳐 후기로 갈수록 그 영향력은 줄어들고, 반면 학교와의 유대와 같은 요인은 초기보다는 중기나 후기 때 중요하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초기, 중기, 후기 모두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후기에서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가정환경 요소는 청소년초기에,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은 초기보다 후기에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LaGrange and White, 1985; Thornberry, 1994).

최근 미국 NYS 자료를 사용한 이상문(2005)의 연구에서는 비행요인을 성별로 다룸에 있어 그것이 연령별로 또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했는데, 남자의 경우는 청소년초기, 중기, 후기 모두에서 가정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비행친구의 영향력만이 유의미했던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초기와 중기는 가정유대와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모두 유의미했고, 후기에서만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청소년후기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가정보다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중요하지만 초기와 중기에서는 남성의 경우와 달리 여성의 경우는 비행친구 이외에 가정의 역할도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이론에 따르면 어려서 형성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모든 연령층의 비행을 설명한다고 하며, 따라서 아동, 청소년기의 비행, 그리고 성인기의 범죄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발전이론가들은 청소년 성장기에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성향요인보다도 성장기의 사회 환경요인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후 연구들을 보면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이 제시되는데, 저연령대의 아동집단의 경우는 어려서 형성된 성향에 의해 더 영향을 받고 환경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어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중요하지만, 청소년기나 성인초기의 대상자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보다는 사회 환경요인들이 더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Bartusch와 동료들의 연구(1997)에서는 9-10세의 연령집단과 13-15세의 연령집단에서의 비행의 원인이 어떻게 다른가에 주목했는데, 전

자의 경우는 개인성향의 요인들이,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요인이 주요 요인이었음을 제시했다. 또한 15-16세 연령을 대상으로 한 Paternoster와 Brame(1997)의 연구에서는 어려서의 낮은 자기통제력도 그 원인으로 중요했지만 그 영향력이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던 반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p < .001$ 수준에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했고, 보다 최근의 14-15세 대상의 Chapple(2005)의 연구에서도 Paternoster와 Brame의 결과에서처럼 자기통제력도 청소년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그보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보다 강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청소년 중기이후는 비행친구와 같은 환경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초등학교 아동대상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클 것이지만, 중학생이후의 청소년중기에 해당되는 연령의 경우는 비행친구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국내의 경우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에서 비행친구의 영향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이성식, 1999), 최근 이은희와 동료들의 중학생대상의 연구(2004)에서는 가정 및 학교관련 요인들이 비행친구를 매개로 하여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해 청소년중기에 해당되는 중학생에 있어서도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중요함을 제시했다.

이렇듯 청소년비행의 원인을 남녀이외에 초등학교와 중학생 두 연령집단에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연구들에 근거해 본다면 가정 관련요인과 낮은 자기통제력은 초등학교에서, 학교요인이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친구관계요인은 중학생집단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한다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정 관련요인은 중학생보다 초등학교의 비행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지만,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와의 긴장은 남자에서, 부모의 감독과 부모의 강압적 양육은 여자에서 더 강할 것으로 예측한다.

둘째, 학교관련요인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비행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지만, 학교공부관여와 학교공부긴장은 남자에서, 학교선생애착은 여자에서 더 강할 것으로 예측한다.

셋째, 친구관련요인으로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친구관계긴장은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비행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지만, 친구관계긴장의 영향력은 남자에게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남녀모두에서 강하게 작용할 것이며, 남녀모두에서 가정, 학교관련요인보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

넷째, 개인성향 요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비행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며, 남녀모두에서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청소년패널자료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05년도에 실시했던 1차 자료와 2006년도의 2차 자료가 있고, 중학생 2학년 대상의 2004년도 1차 자료와 2005년도의 2차, 2006년도의 3차 자료가 있다. 여기서는 이 두 연령집단의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자료, 즉 초등학교 4학년의 1,2차 자료와 중학생 2학년의 2,3차를 사용하기로 하는데, 본 연구의 독립변인에 해당되는 변인들은 시간적으로 앞의 자료를, 그리고 종속변인인 청소년비행은 뒤의 자료를 사용하여 인과관계의 전후관계를 명

확히 하려고 한다. 여기서는 청소년비행의 남녀의 차이를 살펴보려는 것에 관심이 있는바 위의 두 연령집단의 각각의 자료를 남녀별로 또한 각각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주요 변인들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로 다룰 청소년비행은 초등학교 4학년 자료와 중학교 2학년자료의 비행문항들에서 일치하는 것들을 골라 사용하기로 하는데, 흡연, 음주, 무단결석, 폭행, 절도, 강도의 여섯 문항의 경험여부를 사용하기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각각 여섯 문항을 합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먼저 부모와의 애착은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해 갖는 애착뿐만 아니라 부모의 애정을 포함한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에 주목했는데, “부모님은 나에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등의 여섯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다. 부모의 감독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등의 네 문항을 사용했으며, 부모의 강압적 양육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의 두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교요인으로 학교공부예의 관여는 학생들이 학업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는 국어를 포함한 여덟 과목 각각에 대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며, 각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학교선생에 대한 애착은 “나는 선생님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 등의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긴장요인으로서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긴장, 학교공부의 긴장,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부모와의 긴장은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세 문항을, 학교공부긴장은 “학교성적이 좋

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세 문항을,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은 “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세 문항을 사용하였다.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위의 여섯 가지 비행에 해당되는 비행을 저지른 비행친구가 있는지를 사용하였는데, 흡연, 음주, 무단결석, 폭행, 절도, 강도의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 항목을 사용하고, 각각 합산하도록 하였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충동성, 순간만족성, 위험추구성 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나는 위험한 행동을 즐기는 편이다” 등의 여섯 문항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했다.

IV.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우선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의 결과를 보면 <표 1>에서와 같다. 부모와의 애착과 부모의 감독처럼 부모와의 유대 점수는 전체적으로 높지만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강압적 양육과 부모와의 긴장은 그 점수가 낮았고,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대로 학교공부와의 관여는 중학생보다는 초등학생이 높았으며 초등학생은 여자가, 중학생은 남자가 높았다. 학교선생에의 애착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초등학생은 여자가, 중학생은 남자가 다소 높았다. 그밖에 학교공부긴장과 친구관계에서의 긴장, 비행친구 접촉, 낮은 자기통제력, 그리고 이전비행과 청소년비행에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그 점수가 높았으며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

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가 왜 비행에서 더 높은 점수를 갖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초등생		중학생		범 위
	남	여	남	여	
부모와의 애착	21.811	23.077	19.964	21.031	6-30
부모의 감독	13.096	14.399	12.946	14.021	4-20
부모의 강압적 양육	3.374	2.843	3.690	3.354	2-10
부모와의 긴장	5.626	5.385	8.249	7.964	3-15
학교공부참여	26.688	27.479	25.404	25.032	8-40
학교선생애착	7.684	8.823	7.979	7.693	3-15
학교공부긴장	6.670	6.638	9.031	9.130	3-15
비행친구접촉	.572	.342	.864	.798	0-6
친구관계긴장	5.418	5.296	6.704	6.306	3-15
낮은 자기통제력	14.177	12.364	16.285	16.191	6-30
이전비행	.282	.143	.542	.593	0-6
청소년비행	.244	.113	.864	.555	0-6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표 2-1>과 <표 2-2>에 제시되고 있다. 먼저 <표 2-1>의 초등학생 패널자료의 결과를 보면 남자의 경우 다른 변인들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p<.001$ 수준에서, 그리고 통제변인인 이전의 비행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역시 많은 변인들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통제변인인 이전의 비행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여자에게 더 강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2-1> 초등학생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남		여	
	b	β	b	β
부모와의 애착	.004	.027	.002	.018
부모의 감독	-.006	-.036	-.001	-.000
부모의 강압적 양육	.017	.047	.003	.012
부모와의 긴장	-.007	-.033	.004	.027
학교공부관련	.001	.007	.001	.012
학교선생애착	-.007	-.028	-.001	-.003
학교공부긴장	-.006	-.031	-.001	-.001
비행친구접촉	.033	.054	.065 ***	.112
친구관계긴장	.011	.048	.006	.039
낮은 자기통제력	.016 ***	.108	.007 *	.071
이전비행	.172 ***	.168	.144 ***	.153
R제곱	.069		.064	
F값	8.785***		7.093***	

*= $p<.05$; **= $p<.01$; ***= $p<.001$

<표 2-2>의 중학생 패널자료의 결과를 보면 남자의 경우는 앞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만이 유의미하였던 것과는 달리 낮은 자기통제력이 $p<.01$ 수준에서, 그리고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그보다도 이전비행 이외에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공부에의 관여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여자의 경우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낮은 자기통제력이 $p<.05$ 수준에서, 학교공부에의 관여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2-2> 중학생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남		여	
	b	β	b	β
부모와의 애착	-.005	-.024	-.008	-.043
부모의 감독	-.002	-.006	-.010	-.040
부모의 강압적 양육	.004	.009	.020	.040
부모와의 긴장	.004	.014	.007	.023
학교공부관여	-.010 *	-.057	-.010 *	-.058
학교선생애착	.001	.002	.011	.032
학교공부긴장	.015	.043	-.026 **	-.077
비행친구접촉	.034 *	.058	.075 ***	.125
친구관계긴장	.027 **	.076	.001	.004
낮은 자기통제력	.015 **	.065	.022 ***	.104
이전비행	.401 ***	.420	.367 ***	.404
R제곱	.251		.331	
F값	44.183***		65.480***	

*=p<.05; **=p<.01; ***=p<.001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남녀 모두에서 이전의 비행이 청소년비행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는 본 연구의 예측과 유사하게 낮은 자기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저연령인 초등학생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고, 중학생의 경우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였다. 하지만 중학생의 경우 낮은 자기통제력보다 비행친구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더 컸다. 그렇지만 여자의 경우는 본 연구의 예측과 달리 저연령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모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였고,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는 비행친구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 연구는 이전 연구와 달리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크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본 연구의 예측대로 학교공부의 관여와 같은 학교요인은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요인이 여자보다 남자에서 더 클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남녀모두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가정요인은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에게서 더 클 것으로, 그리고 남녀에 따라서도 다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남녀 모든 연령집단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에서의 긴장은 남자중학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긴장요인은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그리고 친구관련 요인은 저연령층보다 중학생에게서 더 클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과 일치하였다.

<표 3-1> 초등학생 경비행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남		여	
	b	β	b	β
부모와의 애착	.001	.006	.001	.011
부모의 감독	-.002	-.013	.001	.010
부모의 강압적 양육	.006	.023	.006	.026
부모와의 긴장	-.002	-.014	.001	.005
학교공부관여	.001	.007	.001	.015
학교선생애착	-.005	-.031	-.002	-.014
학교공부긴장	-.006	-.039	-.004	-.037
경비행친구접촉	.029	.038	-.009	-.013
중비행친구접촉	-.001	-.001	.050 *	.074
친구관계긴장	.008	.047	.007	.059
낮은 자기통제력	.010 **	.092	.005 *	.066
이전경비행	.153 ***	.160	.231 ***	.259
이전중비행	.022	.015	-.171 **	-.103
R제곱	.052		.088	
F값	5.557***		8.431***	

*= $p<.05$; **= $p<.01$; ***= $p<.001$

<표 3-2> 중학생 경비행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남		여	
	b	β	b	β
부모와의 애착	-.006	-.031	-.007	-.040
부모의 감독	-.004	-.016	-.010	-.048
부모의 강압적 양육	.010	.023	.024 *	.056
부모와의 긴장	.001	.003	.006	.022
학교공부관여	-.008 *	-.051	-.009 **	-.063
학교선생애착	.0004	.001	.009	.032
학교공부긴장	.006	.022	-.024 **	-.081
경비행친구접촉	.111 ***	.138	.087 ***	.112
중비행친구접촉	-.106 **	-.095	.018	.015
친구관계긴장	.017 *	.056	.001	.004
낮은 자기통제력	.013 **	.066	.018 ***	.101
이전경비행	.393 ***	.356	.366 ***	.367
이전중비행	.169 ***	.091	.010 *	.051
R제곱	.253		.318	
F값	37.809***		52.071***	

*=p<.05; **=p<.01; ***=p<.001

한편 청소년비행의 여섯 문항은 크게 지위비행인 경비행(흡연, 음주, 무단결석)과 보다 심각한 중비행(폭행, 절도, 강도)으로 나눌 수 있는 바 그것을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경비행의 경우는 <표 3-1>과 <표 3-2>에, 중비행은 <표 4-1>과 <표 4-2>에 제시된다. 그 결과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앞서 결과에서처럼 이전비행이외에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주요 설명요인인데, 경비행의 경우 <표 3-1>의 저연령의 초등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이(비록 여자의 경우는 비행친구도 유의미하였지만), <표 3-2>의 중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보다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더 중요한 요인이어서 본 연구의 예측과 유사했다. 또 중비행

의 경우도 <표 4-1>의 초등학생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이(비록 여자의 경우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유의미하였지만), <표 4-2>의 중학생의 경우는 남녀모두 낮은 자기통제력이 유의미하지 않았고, 중비행친구와의 접촉이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두 연령집단에 따라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친구의 영향이 다를 것이라는 예측과 거의 일치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4-1> 초등학생 중비행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남		여	
	b	β	b	β
부모와의 애착	.003	.044	.002	.037
부모의 감독	-.004	-.056	-.002	-.029
부모의 강압적 양육	.011	.062	.002	.011
부모와의 긴장	-.004	-.039	.004	.052
학교공부관여	.001	.008	.001	.002
학교선생애착	-.003	-.010	.001	.003
학교공부긴장	-.001	-.008	-.004	-.052
경비행친구접촉	.035 *	.068	-.002	-.004
중비행친구접촉	.006	.012	.089 ***	.187
친구관계긴장	.003	.027	-.002	-.018
낮은 자기통제력	.006 **	.084	.001	.024
이전경비행	.172 ***	.168	-.005	-.008
이전중비행	.124 ***	.121	.085 *	.073
R제곱	.054		.057	
F값	5.700***		5.311***	

*= $p<.05$; **= $p<.01$; ***= $p<.001$

<표 4-2> 중학생 중비행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			
	남		여	
	b	β	b	β
부모와의 애착	.001	.019	-.002	-.030
부모의 감독	-.0001	-.001	.001	.013
부모의 강압적 양육	-.004	-.028	-.002	-.013
부모와의 긴장	.005	.049	.0002	.002
학교공부관여	-.001	-.022	-.001	-.015
학교선생애착	.002	.014	.001	.010
학교공부긴장	.006	.052	-.002	-.022
경비행친구접촉	.003	.012	.004	.013
중비행친구접촉	.028 *	.066	.036 *	.083
친구관계긴장	.010 **	.089	-.002	-.022
낮은 자기통제력	.002	.027	.003	.050
이전경비행	.004 ***	.105	.026 *	.073
이전중비행	.125 ***	.178	.194 ***	.275
R제곱	.087		.147	
F값	10.553***		19.299***	

*=p<.05; **=p<.01; ***=p<.001

V. 결 론

이 연구는 청소년비행의 원인이 성별로 차이가 있는지 기존의 주요 이론 사회통제이론,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긴장이론, 일반이론의 주요 요인들을 적용하여 청소년패널 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하였고, 아울러 그 원인들이 상이한 두 연령집단에서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가정요인들은 남녀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초등학교 저연령에서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그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과서와 같이 가정요인은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에 의해 그 영향력이 매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교요인은 사회유대요인인 학교공부 관련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예측대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서 그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보다 남자에게서 그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남녀중학생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특히 학교공부관련은 남녀중학생의 중비행보다는 경비행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친구요인으로 긴장이론에서의 친구관계긴장은 본 연구의 예측대로 여자의 경우보다는 남자의 경우에서 유의미하였고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긴장은 중학생남자의 경비행과 중비행 모두에서 유의미하였다. 아울러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은 본 연구의 예측대로 남녀 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경우에서 그 영향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개인성향인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본 연구의 예측대로 남녀 모두에서 중요했으나, 그 영향력은 저연령의 초등학생에서 더 강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측과 달리 두 연령집단 모두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경비행에서 그랬고 중비행의 경우는 중학생집단에서 그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본 연구의 예측대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 볼 때 청소년비행의 원인은 성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었고 아울러 연령별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비행이 경비행인지 중비행인지에 따라서도 그 원인이 다를 수도 있음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낮은 자기통제력이 중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전의 과거비행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비행에 있어 조기에 사전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냈다. 이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료가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별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김성경. 2003. 여자청소년의 비행경험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4): 487-510.
- 김준호, 김순형. 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준호, 김은경. 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민수홍. 2002. 여자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13(1):35-66.
- 이상문. 2005. 성별에 따른 일탈행동 성장경로의 차이: 미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9(4):162-197.
- 이성식. 1999.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 형사정책연구 10(1):193-221.
- 이성식, 전신현. 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5):173-198.
- 이은희, 공수자, 이정숙. 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123-45.

전영실. 2003. 성, 사회유대, 비행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53:67-86.

Agnew, R. 1992.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47-87.

Agnew, R. and T. Brezina. 1997. Relational Problems with Peers, Gender and Delinquency. *Youth and Society* 29(1):84-111.

Anderson, B.J., M.D. Holmes and E. Ostresh. 1999. Male and Female Delinquents' Attachments and Effects of Attachment on Severity of Self-Reported Delinquenc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4):435-52.

Bartusch, D.J., D. Lynam, T.E. Moffitt, and P. Silva. 1997. Is Age Important? Testing a General versus a Developmental Theory of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5:13-48.

Bjerregaard, B. and C. Smith. 1993. Gender Differences in Gang Participation, Delinquency,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4):329-55.

Canter, R.J. 1982. Family Correlates of Male and Female Delinquency. *Criminology* 20:149-68.

Cernkovich, S.A. and P.C. Giordano. 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295-322.

Chapple, C.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89-106.

Chesney-Lind, M. 1997. *The Female Offender: Girls, Women and Crime*. London: Sage.

Funk, S. 1999. Risk Assessment for Juveniles on Probation: A Focus of Gende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6(1):44-68.

- Gottfredson, M.R.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gan, J., A.R. Gillis and J. Simpson. 1987. Class in Household: A Power-Control Theory of Gender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788-816.
- Hay, C. 2003. Family Strain, Gender, and Delinquency. *Sociological Perspectives* 46(1):107-35.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Free Press.
- Hoffman, J. and S.S. Su. 1997. The Conditional Effects of Stress on Delinquency and Drug Us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4:46-78.
- Jensen, G.F. and R. Eve. 1976. Sex Differences in Delinquency: An Examination of Popular Sociological Explanations. *Criminology* 13:427-48.
- Johnson, R.E. 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rohn M.D. and J.L. Massey. 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Sociological Quarterly* 21:529-43.
- LaGrange, R.L. and H.R. White. 1985. Age Differences in Delinquency: A Test of Theory. *Criminology* 23:19-46.
- Mazerolle, P. 1998. Gender, General Strain, and Delinquency: Empirical Examination. *Justice Quarterly* 15:65-91.
- Paternoster, R. and R. Brame. 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riminology* 35:49-84.
- Rankin, J. 1980. School Factors and Delinquency: Interaction by Age and Sex. *Social Science Research* 64:420-34.

- Rosenbaum, J.L. 1987. Social Control, Gender, and Delinquency: An Analysis of Drug, Property and Violent Offenders. *Justice Quarterly* 4(1): 117-132.
- Rosenbaum, J.L. and J.R. Lasley. 1990. School, Community Context, and Delinquency: Rethinking the Gender Gap. *Justice Quarterly* 7(3):493-513.
- Rowe, D.C., A. T. Vazsonyi, and D.J. Flannery. 1995. Sex Differences in Crime: Do Means and Within Sex Variation have Similar Caus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2(1):84-100.
- Smith, D.A. 1979. Sex and Deviance: An Assessment of Major Sociological Variables. *Sociological Quarterly* 20:183-95.
- Smith, D.A. and R. Paternoster. 1987. The Gender Gap in Theories of Deviance: Issues and Evid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4(2):140-72.
- Steffensmeier, D. and E. Alaan. 1996. Gender and Crime: Toward a Gendered Theory of Female Offend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459-87.
- Thornberry, T.P. 1987. Toward an Interaction Theory of Delinquency. *Criminology* 25:863-92.
- Thornberry, T.P. 1994. Delinquent Peers, Beliefs, and Delinquent Behavior: A Longitudinal Test of Interaction Theory. *Criminology* 32:47-83.
- Widom, C.S. and J.B. Kuhns. 1996. Childhood Victimization and Subsequent Risk for Promiscuity, Prostitution, and Teenage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6(11):1607-12.

A Gender Difference in Causes of Delinquency: Using Panel data from Two Age Groups

Lee, Seong-Sik*

This study intends to test whether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explaining delinquency. This work tests social bond, differential association/social learning, strain, and a general theory of delinquency and identifies several explanatory factors. In addition, to test a developmental perspective that the factor underling delinquency is different across different age groups(elementary vs middle school students), we use KYPS data from two different age groups.

Results show that family factors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delinquency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econd, the effect of commitment to scholastic activities is more important in explaining delinquency of middle school students but there is no gender difference. Third, the effects of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is significant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cross two age groups. However, strain with peers is more important factor i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Fourth, the effects of self-control is significant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across two age groups. However, its effect is significant on minor delinquency but mediated by association with

*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Ph.D. in Sociology

delinquent peers on major delinquency.

Overall, results show that there are gender differences in explaining delinquency and the effects of those important factors are also different across two age groups. In addition, findings reveal that those effects can be different across types of delinquency. However, association with delinquent peers and low self-control are more important explanatory factors in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ose results are discussed.

주제어 : 성, 연령, 비행, 패널자료

Keywords : gender, age, delinquency, panel data